

2025 년 6 월 1 주차 각 지역 소식



🌐싱가포르

- ✔HMM,싱가포르선사 PIL 과 공동으로 싱가포르-인도네시아-북중국 서비스 개설
- ✔제주항공,7 월부터 인천~싱가포르 신규 취항
- ✔초갑부들,싱가포르에 금 보관 러시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특별경제구역 설립.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고속철도 연결 등 투자 유치 통해 2 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DHL 익스프레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개장.물류취급량 확대.국경 간 배송 효율성 향상
- ✔네슬레 말레이시아,포트클랑에 2 억 5 천만링깃규모 물류허브 건설 중.수출 운영 창고 자동화 강화 예정

🌐홍콩

- ✔유럽연합(EU),중국발 전자상거래 현행 150 유로이하 목록 통관 규정 폐지,모든 전자 상거래 건당 2 유로 수수료 부과 방안 검토 중
- ✔홍콩발 전자상거래 물량 중국 본토에서 자체 처리로 홍콩 물동량 감소,홍콩 파워더들 BSA 취소 현상 발생

🌐심천

- ✔샤오미,자사 설계 3nm 칩으로 반도체 자립 선언

✔리튬순배터리/자석/희토류 수출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최근 HS CODE 84/85/90 으로 시작되는 제품 중점 검사 대상

🌏충칭

✔아이폰 16 프로, 중서 1 위 재탈환 가격 인하 전략 통했다

🌏샤먼

✔中 중고차 수출 고속 성장세 '주춤'...이익률 5%로 뚝

🌏불산

✔완다그룹, 2 년 만에 최대 규모 자산 매각...전국 48 개 완다광장 처분

🌏상해

✔관세유예 조치로,성수기 물량 확보 수요와 맞물려 태평양 항로 운임 급등

✔MJ 상해지점,HMM +COSCO 와 북미항 S/C 계약

✔上海 '야오쉬에 워터월드(耀雪水世界)'개장..중국 최초 39M 고공 슬라이드

✔중국-베트남 국제열차 다시 달린다...5 월 25 일부터 운행 재개

✔푸둥공항,국내선 24 시간 개방 운영

✔27 회 상하이 국제영화제 6 월 13 일 개막..5 일 티켓 예매 시작

🌏광저우

✔화남지역 첫 번째 외국인 독자 종합병원,싱가포르 평루이리그룹 광저우 시내 약 1.18 km² 부지에 총 50 억위안 규모 투자 건강의료타운 조성 계획

🌏청도

✔산동성 블루베리 수출 증가 추세,싱가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4 월까지 수출량은 42 톤

🌏천진

✔대련 세관 수입 화물 검사 강화, 랜덤 검사로 4 월까지 총 297 개 불합격 상품 검출,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된 수치

✔4 월까지 수도 국제공항과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수출 화물 30 만톤 달해,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태국

✔태국,6 월 1 일부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집중 단속...최대 2,000 바트 벌금

- ✓태국 최대 풍력발전기업 윈드 에너지홀딩,오는 2037년까지 총 650억 바트(약 2조 7300억원) 투자해,풍력 발전 용량을 현재 700MW에서 2,000MW로 확대할 계획
- ✓동원 F&B·대상,태국 식품 박람회 참가...시장 공략 속도
- ✓경남 수산 기업,태국 식품박람회 참가...아시아 수출 확대
- ✓태국발,망고 출하 물량으로 6월까지 항공 스페이스 부족,카고 롤-오버 상황

🌐하노이

- ✓하이퐁발 미주향 해상운임 급등세.LA항 40'\$6,000 수준
- ✓한국피아이엠,베트남라인 증설...고부가 IT MIM 양산설비 도입
- ✓마크롱,동남아 순방서 '佛원전 세일즈'...25일 베트남 방문
- ✓베일 벗는 베트남 트럼프타워...투자액만 1조 4천억원
- ✓세종시,베트남 현지서 79억원규모 수출 협약 성과
- ✓LS 에코에너지,베트남에 3300만불규모 초고압케이블 공급
- ✓KT,구글·MS 제치고 베트남 'AI 동맹'자리

🌐호치민

- ✓베트남 행정구역 통폐합,성급 지자체 63→34개
- ✓베트남-프랑스 정상회담...경제·국방·문화분야 협력 강화
- ✓제주항공, 다낭 공항 착륙 후 활주로 이탈

🌐대만

- ✓대만 원전정책 재검토,마안산 원전 재가동 두고 국민투표 시행
- ✓쿠팡, 중기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대만 진출 늘린다
- ✓한국,호치민,자카르타,방콕향 6월 일부선사 운임 다소하향 조정,하이퐁향 운임 다소상향 조정

🌐마닐라

- ✓6월 6일 라마단 종료일로 공휴일
- ✓메트로 마닐라 5부제에서 홀짝수로 변경 (홀수는 월수금, 짝수는 화목토 운행 가능)

🌐자카르타

- ✓25년 지진 발생 최다국 1위 인니,불의고리에 위치
- ✓HMM, 북중국-인도네시아 추가 직항서비스 개설,6월 19일 첫출항 TXG/TAO/XMN/SIN/JKT/SUB/SIN/TXG

▶주간 시황 요약

Container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Bulker 美연방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철광석 투자심리 상승

▶Container

	5/30	5/23	증감
SCFI	2072.71	1586.12	▲ 486.59
美서안	5,172	3,275	▲ 1,897
美동안	6,243	4,284	▲ 1,959
유럽	1,587	1,317	▲ 270
지중해	3,061	2,328	▲ 733
동남아	441	440	▲ 1
중동	1,692	1,387	▲ 305
호주	709	722	▼ 13
남미	2,797	1,934	▲ 863
日서안	315	315	-
日동안	320	320	-
한국	139	140	▼ 1
동서Africa	4,060	3,776	▲ 284
남Africa	2,242	1,991	▲ 251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종합 SCFI 4주 연속 상승, 북미 포함 전 항로 강세

1. GRI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운임 급등. 미국 외 항로에서도 북미항로 선박재배치에 따른 연쇄 효과로 공급 축소/선적 증가 나타나며 운임 동반 강세
2. 美 일부기업 및 주정부가 관세 정책의 위법을 지적한 소에서 법원은 원고측 청구를 인용. 즉시 항소했으나 상호관세 무효화 및 관세 환급 가능성이 생긴 만큼 수출입 업계, 무역상대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지속
3. 5/30 美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 발표, 최근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체 수단을 통해 현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

미주항로 美 서안 6 주 연속 상승,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며 6 월 운임 급등세

1. 5 월 주간 공급량은 54.5 만 TEU 로 4 월대비-1.8%, 3 월 대비 -3.9% 축소되는 등 '24 년 6 월 이래 최저를 기록, 상호관세 부과 직후 시행된 대규모 공급 조절의 결과.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中美 유예 합의 후 수요 급증하며 운임은 6 월까지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 서비스 확대가 이어지며 6 월 서안 총 선복량은 127 만 TEU 로 7 개월 내 최고를 기록, 반면 결항은 11.3 만 TEU 로 전년 6 월 이후 최저. CUL 은 '23. 6 월 철수한 북미항로 복귀를 선언하는 등 중소선사 진출/확대 증가세. 단기 공급 집중에 따른 항만 혼잡 심화 전망 증가

유럽항로 2 주 연속 상승, 미주 공급 집중화 영향으로 유럽항로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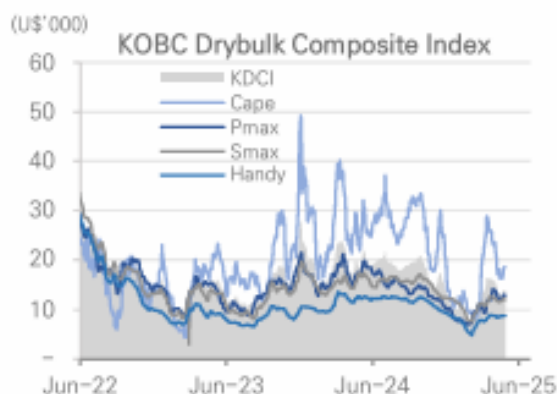
1. 5 월 주간공급량은 50.4 만 TEU 로 전년대비 7.9% 확대되며 지난 1 년 중 최대를 기록. 5 월까지 미주 항로 약세에 따른 선복 재배치 증가로 공급과잉이 극심해졌으나, 최근 시황 반등으로 인해 6 월 주간공급량은 전월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
2. CMA CGM 은 6 월 인도-지중해 항로의 수에즈 이용 재개를 발표하며 대형선사 중 처음으로 복귀를 공식 선언. 운하 이용료 인하, 후티-미군 합의, 항만 혼잡, 최근 변화된 시장 기류가 복귀를 앞당긴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 다만 타선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

연근해/기타 동남아 3 주 연속 상승

1. 원양-연근해간 연결 강화를 위한 대형사의 아주역내항로 확대 지속. 올 2 분기 中-베트남 항로 수는 전년대비+18%, 中-싱가폴 +14%, 中-태국 +13%로 확대, 선사 간 경쟁 심화

► Bulker

		5/30	5/23	증감
KDCI		13,566	13,313	▲ 253
Cape	평균	19,116	18,324	▲ 792
	F/H	34,525	34,225	▲ 300
	T/A	13,688	15,718	▼ 2,030
	Pac RV	17,575	16,675	▲ 900
P'max	평균	10,462	11,201	▼ 739
	F/H	15,750	16,028	▼ 278
	T/A	8,938	9,578	▼ 640
	Pac RV	8,950	10,000	▼ 1,050
S'max	평균	11,393	11,854	▼ 461
	F/H	15,573	15,675	▼ 102
	T/A	14,337	14,492	▼ 155
	Pac RV	10,364	11,065	▼ 701



Cape 美연방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1.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를 막은 후 투자심리가 낙관적으로 전환되며 상승세
2. 5/28 美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하여 전면 무효 판결을 내리며 미국 정부에 10 일 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철회할 것을 명령함. 이에 따라 미·중간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글로벌 무역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
3. 그러나 불과 하루 만인 29 일 오후 늦게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되살리는 결정을 내림
4. 중국 남부 지방의 우기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 영향으로 중국 247 개 제강소의 고온금속 (hotmetal) 생산량이 전주 대비 9,000 톤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이는 철강 수요 감소로 제강소의 수익성이 나빠진데다, 정부의 생산 제한 정책이 더해진 결과로 철광석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5.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철광석 수요 감소가 지속되어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우나 거시 경제적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혼조세 가능성 有

Panamax 인디아 몬순 시작

1. 몬순 시즌의 시작으로 인디아 발전용 석탄 수요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중국 국내 석탄 구매 증가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세
2. 미국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은 전년 및 직전 5년 평균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며 옥수수의 생육 상태는 양호~우수로 평가된 비율이 68%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 작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
3. 아르헨티나는 5월 중순 이후 계속된 폭우로 인해 전국 대두 수확률이 77%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는 수확 완료 비율이 61% 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강수량의 70~95%에 달하는 비가 이미 내려 습한 토양과 기계 접근 불가상황이 겹쳐 수확 지연,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인디아 서부에는 이미 강우가 시작되어 발전용 석탄 수요 둔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5. 24/25 회계연도 인디아의 석탄 기반 발전은 8.9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탄 수입은 2억 4,362만 톤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
6. 호주 뉴캐슬 항만의 선적 지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호주 철도 공기업인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은 운송을 재개했지만 선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물류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7. 곡물과 석탄 모두 상승 모멘텀을 받을 만한 요인이 당분간 없어 약세 전망

Supramax 수역 내 화물 부족

1. USG 지역의 곡물, 펠릿 등 화물 유입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양대 수역 모두 전반적으로 화물 부족과 선박 과잉 상태가 지속되며 하락세
2. 대서양은 남미와 지중해에서 신규 화물 부족으로 화주 측의 운임 인하 요구가 거세어 약세 압력이 가중되며 하락세
3.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물 수요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선박 공급은 여전히 과잉 상태로 인해 하락세 지속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